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자기혁신 프로젝트

경기도포천교육청, 학부모 평생학습교실 강좌 운영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자기혁신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경기도 포천교육청은 학부모 30명을 대상으로 12월2일부터 30일까지 사회의실에서 학부모 평생학습교실 정규 강좌를 운영한다.

이번 학부모 평생학습교실은 부모교육을 통해 건강한 가정 만들기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하는 만큼 배움과 변화에 앞장서는 부모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지난 9월9일 <자녀의 IQ개발>, 10월 14~15일 <부모다운 부모 되기 교육, 좋은 부모교육> 특강에 이어 이번 연수에는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자기혁신 프로젝트’ 정규 강좌로 매주 화요일에 3시간씩 총 5주 동안 진행되고 있다.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김영자 강사는 자녀가 바라는 것을 이해하고 자녀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마음상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연습과 부모로서의 자기이해를 위한 성격 진단,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실생활에서 자녀와 겪는 사례 중심의 강의를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학부모는 “아이와 여러 가지 일에 부딪힐 때마다 힘들었는데 이번에 나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는 성장과 반성의 시간을 갖으며 부모로서의 위치와 중요성을 깨닫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도 포천교육청은 자녀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로 학부모 교육을 추진하기로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자기혁신 프로젝트는 주제로 경기도포천교육청은 학부모 30명을 대상으로 12월2일부터 30일까지 사회의실에서 학부모 평생학습교실 정규 강좌를 운영한다.

했으며 좋은 부모역할을 수행할 기대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민요대회 참가하기 더 큰상 받기 위해 연습 충분히 할 계획

송우초등학교 특기적성반인 우리는 지난주 일요일 구리에서 열리는 민요대회에 나가게 되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다.

하지만 요즘 날씨 관계로 나를 비롯하여 감기에 걸린 친구들이 몇 명 있어서 걱정이 되었고, 어떤 무대에 설 때보다 떨리는 날이었다.

국립국악원 아뜰홀 대극장과 소극장에서 공연 할 때는 서로 서로 의지가 되어서 떨림이 없더니 시작하기 전 여기저기서 연습하는 중에 어떤 남자초등학생의 민요 소리를 듣자 다리가 후들거려왔다.

그전까지만 해도 자신감이 있었는데 갑자기 날 주눅이 들어 버렸다. 상당히 실력을 갖춘 모양이라 생각하니, 더군다나 초·중·고 합해서 시상을 한다니 점점 자신감이 떨어졌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우리는 무대에 여러 번 섰던 경험이 있으니 자신 있게 하라고 용기를

주셨다. 번호가 차례차례 불러지고 우리 학교에서 출전한 친구들도 최선을 다하고 내려왔다. 다른 곳에서 온 친구들은 학원 다니며 갈고 닦은 솜씨로 민요를 불렀고 우리 특기적성반에서 왔다고 하니 모두들 놀라는 얼굴이었다.

나 역시 떨리는 마음으로 소리를 하였고, 실력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실수를 하지 않아 그나마 안심이었다.

마침 밖에는 흰눈이 날리고 있었고 민요대회 분위기를 빛내 주었다. 우리는 결과를 보기 위해 몇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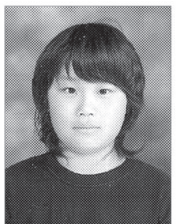
더디어 결과 발표. 채점표가 붙어졌고 나는 은상을 받았다. 대상하고 점수차이가 몇 점 나지 않아 안타깝기도 하였지만 결과에 만족하였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친구가 장려상을 받았다.

마음은 기뻐지만 상을 못 탄 친구들 앞에서 마냥 기뻐할수만은 없었다. 다음 기회에는 목 관

리를 잘하고 연습을 충분히 해서 더 좋은 결과를 냈으면 하는 욕심이 생겼으며, 무엇보다 기뻐한 것은 배편이 곳의 예능보유자인 신이은관 선생님을 직접 배웠고 사진도 찍은 영광이었다.

그리고 추운 날 아침 일찍부터 늦은 시간까지 응원해주고 격려해주신 큰선생님, 매일매일 열심히 가르쳐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야 송우초등학교 특기적성반에 더 많은 후배들이 들어 올 것이고, 경기민요를 더욱 빛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자부심으로 오늘도 신나게 목소리 높여 우리의 노래인 민요를 불러본다. 송우초등 경기민요 동아리팀!



김현준 학생회장 6학년

산학밀착 교육프로그램 운영

대진대학교 정보디스플레이 실습관 개관식

대진대학교(총장 이천수)는 12월 11일 오후3시 정보디스플레이 실습관 개관식을 가졌다.

이번 개관식은 이천수 총장을 비롯 서장원 포천시장과 경기도2청 김기태 경제농정국장 등 각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관식에서 대진대 이천수 총장은 “정보디스플레이 실습관 개관은 대학내 첨단분야 연구개발 능력의 혁신적인 진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며 또한 현장 속에서 산학밀착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한 맞춤형 교육 및 실무중심의 교육강화 등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진대는 10대 차세대성장동력 산업의 하나로 국가의 대규모 투자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디스플레이분야의 특성화를 통해 교내 관련학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경기대진테크노파크를 포함하는 경기북부 디스플레이 산업단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대진대학교는 12월11일 오후3시 정보디스플레이 실습관 개관식을 가졌다.

총동문회의 밤 및 불우동문돕기

정교초등학교 총동문회 500여명 참석



정교초등학교 총동문회는 12월6일 송우웨딩홀에서 총동문회 밤 및 불우동문돕기 행사를 개최했다.

정교초등학교 총동문회(회장 이원일)는 12월6일 송우웨딩홀에서 이은상 정교초등학교 교장, 박훈상 은사, 이규영 초대회장과 동문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동문회 밤 및 불우동문돕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감사제 증정, 이은상 정교초등학교 교장 축사, 재학생 축하공연, 양영일 졸업생의 색소폰 연주, 바다에 졸업생의 축하 독창공연, 축하제이 절단식, 총동문회의 축배와 고향의 봄 노래 순

으로 진행됐다. 1962년도 가산초등학교 정교분교에서 정교초등학교로 정식 인가되어 개교 43주년을 맞이하게 된 정교초등학교 총동문회는 서울대, 고려대, 해군사관학교 등 많은 인재를 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교초등학교 총동문회는 매년 불우동문돕기 행사를 통해 모은 기금을 암, 뇌출혈과 각종 질병으로 등등으로 고생하고 있는 동문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경북중학교 RCY 단원, 자혜원에서 노인봉사활동 펼쳐

경북중학교(교장 심동섭) RCY 단원 20명의 학생들은 오주연 교사의 인솔로 12월18일 오후 3시부터 금현리에 있는 자혜원에서 노인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RCY 단원의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는데 학생들은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과 건강에 관한 강의를 듣고, 신바람 건강 웃음 체조를 함께 실시했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의 강의로 들으며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냈다. 이날 행사를 마친 1학년

양수욱 학생은 “몸이 불편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지 고민해 주셨는데 감사하고 망설여졌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들의 작은 손길이 어르신들에게 화사한 웃음을 찾아 준 것 같아 기뻐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북중학교에서는 전교생 RCY 단원화를 추진 중인데, 현재 1·2학년은 전교생이 RCY 단원으로 각종 봉사 영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경북중학교 RCY 단원 20명의 학생들은 오주연 교사의 인솔로 12월18일 오후 3시부터 금현리에 있는 자혜원에서 노인봉사활동을 펼쳤다.

윤동성의 국제비즈니스 미국영어

방문/출장 13. < 회사 방문 > : (1) 상담 -1 * “대니”와 약속이 있어 왔는데요. 아이해낸어포인먼트 댄미스터 “대니” I have an appointment with Mr.Danny. * 잠시 기다려 보세요. 웨이러미닛, 플리스 Wait a minute, please. * 비서실로 안내 하세요. 테이킵 투더게스트룸 Take him to the huest room. * 오셔서 반갑습니다. 1) 쓰나이스오부 투킵 So nice of you to come. 2) 아임쏘글랏쑤 투킵 I'm so glad you could come. * 빽게돼서 저도 기쁩니다. 나이스미팅유 투 Nice meeting you too. * 공장 돌아보고 오는 길입니다. 우이브가러투어 오부어팩토리 We've got a tour of your factory. 문의: 윤 동성 (017-723-4977)colyoon@nate.com

함께 공부해요

경신(敬身) 편 78

司馬溫公이曰凡諸卑幼事無大小必毋專行하고 必咨稟於家長이니라.

사마공은 말하기를 “모든 가 정안의 아랫사람과 나이 어린 사람은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고 제 마음대로 행하지 못한다. 반드시 집안 어른에게 묻고 여쭙어서 행해야 한다. “가정도 하나의 공동체이니 반드시 질서가 있고 명령체통이 있어야 한다. 가정은 집의 주인이니 크고 작은 일을 가릴 것 없이 반드시 가정에게 여쭙어 그 의견을 들어서 실천에 옮겨야만 한다. 이 같은 질서가 지켜진다면 그 가정은 원만하고 번영을 이룰 것이되 그렇지 못하면 파탄을 가져 올 것이다.” <011-354-6485>



양주수
본지 자원위원회 고문

BEST 보육프로그램 ㉔ 교사 자율장학프로그램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자율장학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야’

우리는 질 높은 보육을 이야기 한다. 보육의 질적 향상은 좋은 물리적 환경과 프로그램의 운영과 인적환경인 원장과 교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인적환경이라는 것에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교사라는 자리! 좋은 교사의 역할과 자질에 대해 학교에서 배우고, 설레임으로 나를 선생님이 라고 불러주는 아이들을 만날 때 뜨거운 열정을 언제나 놓치지 않을 마음으로 교사생활을 시작한다. 시간이 흘러 연륜이 쌓이고 경력교사라는 이름을 달면서 팀 레미에 빠져든다.

과연 ‘나는 내 경력에 걸 맞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이런 의미에서 원마다 실정에 맞는 자율장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교사의 발달단계를 생존단계, 강화단계, 경신단계, 성숙단계로 나누고, 장학유형을 자체연수, 수업장학, 약식장학, 동료장학, 자기장학으로 나누어 장학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간략히 자율장학프로그램을 설명하면 보면, 생존단계(초임시기)의 장학은 영유아 생활지도, 부모와의 상담기법, 영유아의 문제행동진단에 대해 원장을 중심

으로 하는 자체연수를 진행하며, 교육계획안을 공동으로 작성, 원장 및 선배교사의 수업장학으로 진행하고, 주간교육계획안, 월간 교육계획안 작성, 영유아의 문제행동해결방안을 협의해보는 동료장학으로 진행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인 강화단계(3년 이하의 교사)의 경우 어린이집교육과정연수,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대한 연수, 공문서 작성, 다양한 교육과정프로그램을 내용으로 하는 자체연수를 진행하고, 공개수업, 동료교사 수업참관으로 수업장학을 행하며 자기장학의 방법으로 본인의 수업을 녹화하여 자기평가를 해본다. 동료장학은 전문도서 읽고 토론하기, 지역별 연구협회의 및 공개수업에 참석하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인 경신단계(5년 이하) 새로운 프로그램 소개, 영유아평가 및 교육과정 평가를 주제로 자체연수를 진행하며, 수업장학으로 모범수업을 발표하고 새로운 수업방법의 시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자기장학을 위해 보육관련 전문잡지, 학술지를 구독하여 스스로 교사의 역할을 키우는 자기장학을 위해 노력한다. 동료장학으로 유아의 문제행동에 관한 관찰기록을 근거로 토론을 해 본다.

마지막으로 성숙단계(10년 이

상) 보육의 역사, 우리 어린이집의 철학적 근거 찾기, 영유아의 영역별 발달평가에 대해 본인 스스로 자체연수를 진행해본다.

수업장학은 연구수업대회에 참가하고, 시범수업을 스스로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자기장학방법으로 영유아의 발달과정과 유아의 자아개념 증진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도 좋은 장학프로그램이다. 동료장학을 통해서 리더가 되어 협의회를 이끌어가는 것과 효율적인 보육정책의 발전을 모색하는 토론회도 개최하여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세상에 많은 교사들이 성장하기 위해 재교육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는다.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보육은 발전하고 있다.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자는 효율적인 자체장학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스스로도 자기장학을 통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011-9717-5206>



김경선 교민어린이집원장 kksun64@nmail.net